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세계초일류도시 인천
		배포일자 2023년 7월 12일(수) 총 4매		
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(검단선사박물관)	담당자 • 검단선사박물관장 이창석 ☎440-6791 • 담당자 연창호 ☎440-6795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흙과 불의 조화, 토기 - 천년 도시 인천 검단의 토기
- 검단선사박물관, 2023년도 특별전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검단선사박물관은 오는 7월 18일(화)부터 11월 30일(목)까지 2023년도 특별전 <흙과 불의 조화, 토기-천년도시 인천 검단의 토기>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는 검단신도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고대 토기를 시민들에게 소개해 천년 도시 검단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했다.

토기는 인간의 생활과 떼어 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보기에 중요한 자료다. 청동기시대에 검단지역은 우리나라 중서부 최대 규모의 주거지가 확인된 한강 하류의 중심 지역이었고, 삼국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였음이 이번 토기 특별전을 통해 알 수 있다.

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, 1부 ‘검단의 선사시대 토기’, 2부 ‘검단의 마한·백제시대의 토기’, 3부 ‘검단의 신라시대 토기’ 다.

유물 전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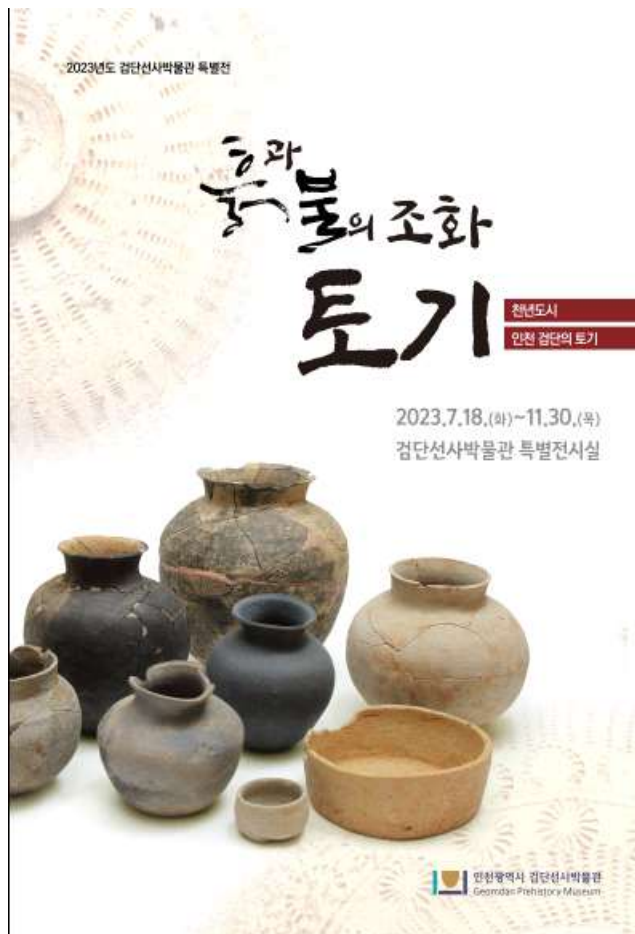
이창석 시 검단선사박물관장은 “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토기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토기가 변화, 발전해 온 용기와 도자기 등을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관람료는 무료다.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/museum/>)를 참고하거나 전화 (032-440-6790)로 문의하면 된다.

<붙임> 특별전 포스터 및 유물 사진 등

■ 붙임 : 특별전 포스터 및 유물 사진 등

<포스터>



<유물사진 1 - 삼국시대의 검단 토기>



<유물사진 2 - 신라시대의 검단 토기>

